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 지 학 순

*지학순 주교님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시 학생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구속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75년 석방 후 원주교구 주교로 복귀하였으나, 감옥에서 건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탓에 1993년에 영면하였다. 이 글은 지주교님의 양심선언, 옥중서한, 항소이유서, 석방환영미사, 강론 등을 찾아 묶은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

1. 김영일(김지하)에게 돈을 준 문제에 대하여

내가 김영일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유혈 데모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자금으로 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순수한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수호를 위한 기금으로 준 것이다. 더구나 공산주의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줄 알면서 주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학생 데모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2. 현 정부에 대한 나의 입장

정보부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나는 현 정부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나. 민주국가에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는 삼권이 1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다. 1인 장기집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 이 글은 1974년 7월 15일 지학순 주교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작성하여 7월 23일 중앙정보부에 재차 연행되면서 남긴 내용이다.

라. 가끔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며
마. 부정부패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상 기록한 것이 나의 기본적 주장이며 생각이다. 이외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나의 진정한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강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추기 김영일(김지하)에게 돈을 준 액수와 시일에 대하여는
그 정확한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백만원 내외의 금액을
1973년 초겨울에 준 것으로 기억된다.

양심선언*

본인은 1974년 7월 23일 오전, 형사 피고인으로 소위 비상군
법회의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과 하
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으므로 소환에 불응한다. 본인은 분명히
말해 둔다. 소위 비상군법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출두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
로 끌려간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 1974년 7월 23일 오전 9시, 성모병원 앞에서 5백 여명이 모여 기도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학순 주교가 내외신 기자와 교우들에게 발표한 글로,
이후 재야에서는 정보기관의 연행에 대비해 '양심선언' 운동이 벌어지
기도 했다.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2.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최소한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기본 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의 긴급명령이라는 단순한 형식만 가지고 짓밟는 것이다. 이래서는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3. 본인이 위반했다고 기소된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다. 이것들은 소위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청원이나 건의를 금지하고, 그러한 청원이 있었다는 것의 보도까지도 금지,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종신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식이다.

4. 본인이 위반했다고 그들이 기소한 또 하나의 죄목인 내란 선동은 본인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억압받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붙인 조작된 죄목이다.

5. 본인을 재판하겠다는 소위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그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는 꼭두각시다. 저들은 지금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하는데 있어서 비상군법회의라 불리우는 이 형사절차의 꼭두각시 이름을 빌리고 싶은 것이다.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동안 당국에 의해 통제된 신문들, 방송들, 텔레비전들은 지금도 계속 증거가 희박한 검찰관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나는 1974년 8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나에게 판결한 내용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에 그 항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한다.

1. 나는 1974년 7월 23일 아침 양심선언을 통하여 소위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그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할 수 없는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의 재판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인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주어진 판결의 감형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권력의 직접적 하수기관인 비상군법회의의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폭력을 나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며, 극형과 무기징역 등 혹형에 시달리는 여타의 민주학생 및 민주시민과 동열에 서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나는 선량한 학생과 시민에게는 무죄를, 그리고 나에게는 차라리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사실상 비공개인 이 재판은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을 말살하고 있다. 그것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독재정권의 음모의 소산이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투쟁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미 발표한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그리하여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

는 민중의 체험 그 자체를 내 것으로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항소라는 절차는 긴급조치의 허구성과 이른바 유신체제의 극악한 독재성을 몸으로 확인하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3. 나는 나의 항소심을 그릇된 정권하의 그릇된 악법에 대항하는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터로 간주한다. 나는 이 재판을 그릇되게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의 부당한 재판행위 그 자체와 싸우는 계기로 삼겠다.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재판의 과정, 이 자체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나는 재판과정을 사회정의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일소 등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에 실현키 위한 참된 복음의 전달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주장이 사회와 교회 내의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정당하게 전달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4. 나는 그간의 과정에서 체험과 느낌으로 박정희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세상 앞에 이 모든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중형이 내려져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는 권력의 시녀로서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 두고 법과 양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의 올바른 기관이 되기 바란다.

재판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본인의 정당한 주장을 누누이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검찰관의 가공적이며 추상적인 논거만이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자체도 공개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공개 재판이

며, 판결 후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검찰관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재판 자체의 허구성을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법회의는 유구한 민족의 역사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법과 양심의 공정한 자세로 되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정부는 군법회의를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처형하는 가 공할 죄악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행위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아무리 허위를 진실이라 해도 허위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아버지가 거짓을 일 삼으면 아이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게 마련이다. 이제 이 나라에서 부정, 불신, 부패를 몰아내고 정의, 진실, 평화가 깃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양심적인 자세로 되돌아가고 진실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진실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6. 나는 비겁한 관리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위하여 이 법정에서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왜 잘못된가?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정의를 심자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다. 진리는 말살될 수 없다.

7. 이 사건에 있어서 나는 다시 한번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만일 내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무죄하신 예수님이 어리석은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질 뿐이다.

지난번 1심 재판 때도 그렇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나는 진실과 정의를

다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면 한만큼 저들은 나를 기만하고 배신했을 뿐이다. 이제 나에게는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기도하며 또 위정자들에게도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이상으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 (1974년 8월 10일)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몸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우리 한국의 현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껴 주고 나의 소신과 주장에 동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여러 성직자, 친지 그리고 원주교구의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께 나의 심경을 전해 드리고, 또한 나의 감사의 정을 표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비엔나의 쾨니히 추기경께

우선 비엔나의 대주교이신 쾨니히 추기경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는 본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우려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죄목으로서의 내란선동이라는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본인은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본인은 이른바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하여 처벌될 것을 잘



▲ 1975년 2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지학순 주교

알고 있었지만,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귀국하였던 것입니다. 또 주교는 직분상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양심선언도 이러한 본인의 소신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 인간회복과 민주회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때까지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마닐라의 대주교님께

마닐라의 대주교님, 귀하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는 필리핀의 가톨릭 주교단 공동명의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회정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투옥된 성직자와 수많은 청년들의 석방을 필리핀 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귀하와 귀

주교단은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통일된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귀하와 귀 주교단의 이와 같은 채거는 동료 주교로서, 또한 같은 이유로 현재 투옥중에 있는 본인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라야나끼 대주교님께

동경의 시라야나끼(白柳) 대주교님, 본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에게 전해 주신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을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한 것은 터무니 없는 무고이며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것도 정직하게 진실을 말한 본인을 처벌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만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두려움없이 소신을 밝혔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구속되어 있는 선량한 사람들의 벗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국내 성직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가 간혀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성직자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뿐만 아니라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정직하고 두려움없이 말하다가 투옥된 사람들도 기도 중에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동안 나를 감금한 사람들의 수없는 거짓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중의 어떤 사람은 성직자들 중에 내가 간혀 있는 이유를 나의 진의와는 틀리게 표현하고, 때로는 이를 묵살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하는 동료 성직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러한 터무니없는 말이 우리의 형제애를 갈라놓지 못하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사랑은 유혹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 아니요,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맹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험벗고 버림받은 사람을 잊지 못하는 눈물이어야 하고, 정직하고 두려움없이 양심껏 말하다가 투옥되어 고통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해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거짓이나 불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진실과의 화해이어야 하고, 공동선과의 화해이어야 합니다. 화해는 인간성과의 화해이어야 하고,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이이어야 합니다. 화해는 전횡(專橫)을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쫓겨난 약자에게 먼저 청해와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괴로움이 가득찬 이 어두운 현실에서 촛불을 밝혀 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길을 비추어 갑시다.

원주교구 교우 여러분께

나의 사랑하는 원주교구 교우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나를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하고 군법회의는 나에게 실형을 언도하여 이곳에 나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는 정당한 범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나를 기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인식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론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게재하는 신문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여러분은 양심껏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앞으로도 여러분은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와 도움을 주십시오. 돈으로 유혹한다고 나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협한다고 옳지 않은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주교단 여러분께

서울대교구장이시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의장이신 나의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본인이 지난 7월 불법 연행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주교단에게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동료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도는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부정과 불의를 거슬러 복음을 주저함없이 증언하려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다가올 가지가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 본 의도를 여러 동료 주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도와 관심의 초점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선교와 증언을 책임진 우리 주교들의 공동의 염원과 관심사가 통일성있는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그

것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어에 갇혀 있는 부자유스런 몸이기에 그래도 아직은 결단과 투신을 위한 자유의 여백을 누리고 계신 동료 주교님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주교님들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우려는 나 개인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국 땅에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 위주의 민주적 정치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염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공동의 신앙에서 우러난 관심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락하고 고귀한 정성을 축복하시어 여러분 위에 인내와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삼가 기도합니다. (1974년 9월 11일)

옥중에서 교황 바울로 6세께

교황님!

이곳은 호젓한 감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조작된 죄목으로 갇혀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이곳이지만, 저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과 사명감에서 조용히 이 고통을 감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더욱 침묵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 그리고 성교회의 기도에 합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정의와 평화구현을 위하여, 특히 우리 조국을 위하여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교황님!

그 동안 저희 원주교구 모든 교우들에게 배풀어 주신 온갖 자부적인 사랑과 배려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속된 이유, 즉 죄목이란 내란선동입니다. 그러나 내란선동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의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다만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민주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마저 빼앗기고도 말 못하는 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겠다는 신념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인권 침해로 상처받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벗을 위하여 이 땅에는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저는 다만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미 제 신변의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일 귀국하여 연행된 후 지금까지 원주교구로는 가지도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죄목에 응하지 않고, 또 인위적인 타협에도 현혹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또 다른 죄목은 긴급조치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는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결여된 법률로서 양심의 표현마저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마저 짓누르고 양심의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회복, 민주회복을 위하여 「양심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황님!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주교로서 하느님과 교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저는 부당한 현실을 예언자적 자세에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간혀 있는 많은 정의의 투사들인 목사, 교수, 학생, 변호사, 언론인들과 함께 정의를 노래하면서 가장 미소한 형제들의 벗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오” 한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에 저의 양심과 어긋나는 표현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은 강압이지 결코 본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며 원주교구 모든 교우들에게 교황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1974년 9월 3일)

최후진술*

1. 종교의 자유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진실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이 글은 1974년 10월 7일 지학순 주교의 고등군법회의 ‘최후진술’을 요약한 것이다.

2. 내가 믿는 천주교의 교리는 폭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이 존경하는 까마라 대주교, 간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을 하였으나 폭력을 반대한 분들이다.

3. 나는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자연법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고 해서 나를 기소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천주교 주교로서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실천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나와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비공개에 가까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산주의가 왜 발생했는지 아는가? 빈부의 차가 극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버림받는 상태를 폭력으로 고치자고 생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부정과 부패를 시정하여 빈부의 차가 감소되어야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고, 공산주의를 막는 길은 부정부패를 시정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밖에 없다. 나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바칠 것이다.

4. 나는 천주교 주교다. 대통령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를 하든 그건 상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고 사회정의를 구현되는 사회, 내 조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5. 여러 재판관은 올바르고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한다.

부도덕을 질책함은 교회의 의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성제를 지내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천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나라의 올바른 도덕과 정의가 구현되어서 모든 국민이 자기 나름대로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실을 비공식적인 소식통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사람이 하루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이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늘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뵈 수 있게 천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인권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 겨레가 모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흐뭇했습니다. 우리 겨

* 1975년 2월 17일 지학순 주교가 석방된 후, 그 이튿날 명당성당에서 있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석방환영미사에서 한 강론 내용이다.

레가 현실 속에 우뚝선 교회로 인해 다시 살아나라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명동성당이 웅장한 자태를 가지고 세워진지 70여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동안 얼마만큼 진리의 교회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서, 진리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주는 교회로서 행동했는가 하고 물을 때 무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이 교회가 전체 국민에 대해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라는 뚜렷한 등대와 지침의 역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회가 정치운동을 한다고 오해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온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고 평화스러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회부문에 걸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질책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실천한 것 뿐입니다. 이를 두고 교회가 정치운동을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된 입장에서 누구나 정치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진

리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진리운동인가 아닌가를 판단 못 하는 교우가 계신다면 그분은 진실된 교우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교우인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를 자기 생활에서 실천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서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참다운 교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며 희생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복을 자기 혼자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고도 천당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의임을 뻔히 알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불의가 마치 불의가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그 불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다 받고 천당에 가려 하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의와 싸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통해 출세를 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세상에 봉사하는 목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구로 삼아서 모든 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를 실천하

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윤리질서가 파괴되어 서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힘만 세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반면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도 꿈쩍도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하고 합심하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듯이 진실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은 사회는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러한 뜻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당한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수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975년 2월 18일>